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증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9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9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언론 모니터 무관심

매일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사건의 홍수속에 건전한 사회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언론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 가는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비평 역할을 하는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교계에서 언론 모니터 운동을 활발하게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는 90년에 창립된 보리방송모니터회 뿐이다. 불교방송 개국이후 출범한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불교방송은 물론 범위를 넓혀 현재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의 쇼·코미디·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며 불교를 왜곡한 사례와 부적절한 방송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 또 연대 단체들과의 의견 교류 및 세미나와 모니터 요원 교육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해 모니터 단체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불교비하 내용 빈발

모니터 모임 한곳뿐

이제는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 기능도 단순히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벗어나 좋은 방송을 위한 대안 제시 등 분석과 연구 기능도 첨가돼야 된다. 또 SBS-TV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에서 지적됐던 '비맞은 중이 염불하듯이 중얼 거린다'는 식의 단순히 스님을 비하한 내용을 가지고 질책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홍무완이 발간한 〈국어사전의 불교용어 오류 검토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신문 및 방송에 나타난 잘못된 용어와 사례들을 지적해 주고 바로잡아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언론 모니터에 대한 발전 방향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한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이들 곁에서 충고해 주고 조언해 주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는 모니터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때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진각종 통리원장 방북

종단 수반으론 처음…"남북 불교교류 새 장"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이 종단 수반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성초 통리원장, 휴명 종회의장, 회정 총무부장,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진각종 대표단 4인은 18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17일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번 진각종 통리원장의 공식 방북은 교계 원장급 인사가 방북하는 것으로는 최초의 일로서 남북불교 교류의 새 장을 여는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초 통리원장 등은 이번 방북기간 동안 보현사 월정사 등 사찰을 참배하고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등

◇성초 통리원장

북한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남북평화통일기원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복지시설건립 지원문제, 재가국제불교성직자연합 창설문제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40호 상보)

한편 진각종은 이번 방북에 앞서 신도들이 기증한 성금으로 조선불교도연맹이 운영하는 황해도 사리원 국수공장에 25인승 중고버스 1대(1만2천불 상당)를 기증했으며 이번 방북에서 기증식도 가질 예정이다. 진각종은 지난해 8월에는 컴퓨터를 조선불교도연맹에 기증했으며 12월에는 평통협과 함께 사리원 국수공장에 자전거 100대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98년 7월 대북한 포교와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불교연구소(소장 회정정사)를 개소한 바 있는 진각종은 매년 2억씩의 통일기금을 적립하는 등 남북한 불교교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포도 영글듯 불심도…

까만 포도송이에 가을이 영글었다. 충북단양 천태종 구인사 포도농장에서 스님들이 포도송이를 따며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부처님 전에 공양물로 올려질 포도는 온중생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부처님의 자비한 미소가 되어 사바세계에 회향될 것이다.

구인사=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부결'

조계종 종회 "종헌위배 내용 포함돼 있다"

선학원 22일 이사회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공동합의문 인준이 부결됐다.

조계종 종회는 15일 열린 142회 임시종회 3일째 회의에서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의 건을 심의했으나, 합의문(안) 가운데 종헌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며 재협상 후 다음 종회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현응스님은 "합의문(안) 5조 '조계종 소속 승려가 선학원에 사찰등록을 할 경우 총무원과 협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종헌 9조3항에 규정된 사설사암 등록 의무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합의문 인준이 부결되자 영담스님은 법인대책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종회는 혜창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학원 현안대책실무위원장 성문스님은 사견임을 전제, "재협상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선학원 자체적인 승적관리 및 도제양성 체제 마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학원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계종 종회의 합의문(안) 인준 부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사찰 오수정화시설 설치 조계종, 정부지원 촉구

조계종종무원 사회부(부장 양산)는 정부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사찰의 오수정화시설 설치 지원과 이 법의 신축적인 운용을 촉구키로 했다.

사회부는 사찰의 경우 공공성을 지녔으므로 오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의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며, 또 오염기여도가 낮은 사찰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회부는 이같은 입장을 곧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계 보전지역,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호구역 내 800㎡이상의 기존 건축물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사찰의 경우 설치한 곳이 24%에 머물러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노인의 해 기념 특별대행사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자, 10월2일은 정부가 정한 '제2회 노인의 날'입니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현대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노인공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계 노인의 해 맞이 기념 특별대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정: 1999. 9. 28(화) ~ 10. 2(토) (5일간)
◇장소: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내용
- 순회 노인 무료진료 (9. 28~30 오전 9시~오후 5시)
- 학술세미나 (9. 29 오전 9시30분)
  · 주제: 새천년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역할
  · 발표: 김동배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정길홍 관장(구로노인종합복지관)
  임미자 교수(이화여대 체육학과)
  혜도스님(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래자랑 (9. 30 오전 10시)
- 체육대회 (10. 1 오전 10시)
-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대축제 (10. 2 오전 10시)

◇문의: 은평노인종합복지관(02-385-1351)

주최 :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현대불교신문사

수행환경 보존-문화재 관련법 강화등

조계종종회 '대정부 결의문'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는 15일 정부와 국회에 민족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회는 결의문에서 "개발위주 정책으로 사찰수행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불교문화재 관련법 강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촉구하고 10월 12일 열리는 사찰환경 보존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은 2일 본사주지회의, 7일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서도 채택됐다.

종회는 또 사미·사미니 의제의 전면 시행과 김대복소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정성운 기자

한-일 수행체험단 교류 제안하기로

한중일 교류위 한국측 회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한국측 참가단(단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은 14일 회의를 열고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교류위원회 안건으로 △한-일 불교교류 활성화 △중국 구화산 지장보살 동상 건립 협조 △2000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서울 개최 등을 제출키로 했다. 한-일불교교류 활성화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일본측에 한-일 양국의 수행체험단 교환방문을 제의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내년 정부예산중 문화예산 1% 넘어

내년도 정부예산중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를 넘어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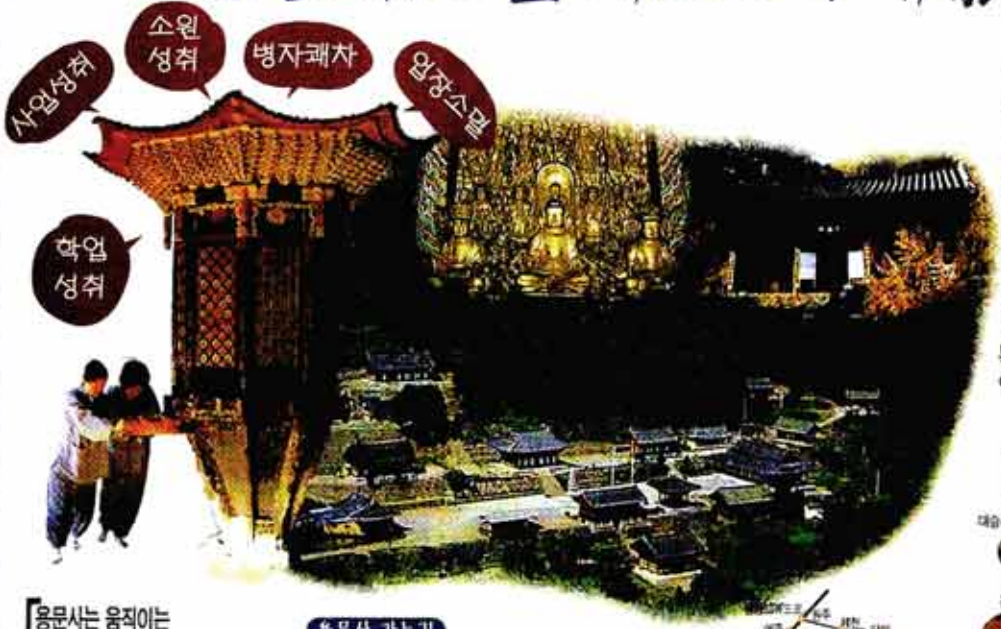
17일 기획예산처는 "2000년 정부예산중 문화예산은 올해 6천6백47억원보다 40% 늘어난 9천3백15억원이 반영돼 일반 회계기준 정부예산의 1.0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반 등 5대 문화산업의 창업과 수출증대를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해 4백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추석연휴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로 : 6003478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1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금주 : 불교방송 문의전화 : (02)705-5560~1

윤장대(보물 제684호)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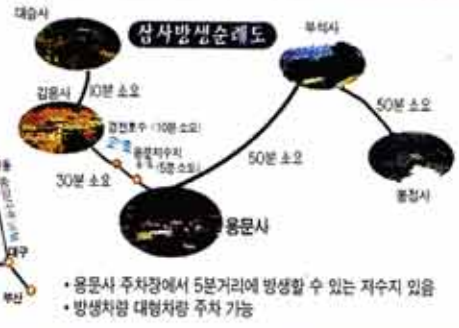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 입재 : 1999(불기2543)년 10월 17일(음 9월 9일)토요일 오전 10시 · 회향 : 1999(불기2543)년 10월 26일(음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서울 ⇒ 예천)대한항공 오전 8시 45분 오후 5시
아시아나 오후 4시
(예천 ⇒ 서울)대한항공 오전 10시 10분 오후 6시 30분
아시아나 오후 5시 20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 등(1인1등) 10,000원 · 영가 위패(1위당) 10,000원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우 체 국 : 702191-0016235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